

제9기 대학평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

일 시	2023년 4월 12일(수) 15:00~17:30
장 소	본관 4층 로터스홀
참석자	11명 / 박태선(동문 및 교외인사), 김태호(동문 및 교외인사), 장원희(바이오시스템대학 생명과학과), 이주하(사회과학대학 행정학전공), 류준형(과학기술대학 창의융합공학부), 신성준(의과대학 의학과), 김종윤(불교학술원 행정팀), 문재흠(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), 유정호(상경대학 경영학부), 류용현(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), 최민성(교무학생처 학사지원서비스팀)
불참자	2명 / 이준혁(동문 및 교외인사), 이용수(교양융합교육원 교양융합팀)

<제9기 위촉식>

총장님 인사말씀 : 평의원분들께서 혁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우리 대학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.

<개 회>

대학평의위원회 평의원 총 13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기에 개회를 선언함.

<안 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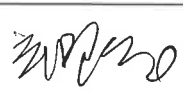
1. 2022학년도 서울/WISE/의료원 결산(안) 자문
2. 학칙 개정(안) 심의
3. 기금 적립목적 변경(안) 자문

<주요 의견>

■ 2022학년도 서울/WISE/의료원 결산(안) 자문

1. 서울캠퍼스

(류용현) 연구학생경비에서 대학원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증가했는가.
 (유진경) 대학원과 국가 장학금이 증가함. 1유형이 늘어났고 2유형은 조금 줄어들어 둘이 합쳐서 증가한 것으로 보임. / (류용현) 교외 장학금 지급율이 저조하다고 보임. / (재무팀_유진경) 교외 장학금이 사실 국가장학금으로 이루어짐. 학부생 대상이어서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은 기획예산실을 비롯해 유관부서와 상의해 보겠음. / (이주하) 형식적인 평의원회에서 벗어나 대학발전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음. 토지 매각대금 및 법인 재단 전입금 감소에 대해서 질의. / (유진경) 토지 매각대금은 건축 적립금을 기금화 함.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. 학부 등록금 감소는 코로나 기간 동안 외국인 학생들 모집이 2~3년간 잘 안되었음. 그해 모집을 못하게 되면 누적 효과로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됨. / (이주하)

간	김태호	신성준	최민성
서명			

자세한 설명을 자료에도 담겼으면 좋겠음. / (재무팀_임지한) 양식을 준수하였지만 차후부터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준비 및 보완하도록 하겠음. / (박대선) 사립학교법상 몇조 몇항으로 평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해주었으면 좋겠음. 비교가능하게 3개년 정도의 시계열 자료 작성을 부탁드립니다.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테일한 자료 작성 부탁드립니다. / (김종윤) 보수에서 교원 15억 증가, 직원 4억 감소에 대한 질의. (임지한) 강사법에 의해 강사 퇴직금이 있음. 계약직원 퇴직금이 감소한 결과임. / (유진경) 총무인사팀에 확인해봐야겠지만,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해야하는데 그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 퇴직금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. / (김종윤) 학과담당 계약직원의 이탈이 높음. 행정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 충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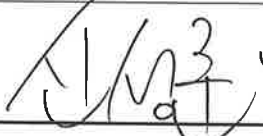

2. WISE캠퍼스

(류준형) 학부 등록금 수입이 줄었는데 의학전문대학원이 전환이 돼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음. 대학원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WISE의 현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질의. 대외 장학금은 많지만 교내 장학금은 많이 줄었음. 학과에서 톱이어도 장학금을 많이 못받는 현상이 나타나 학습 의욕이나 우수 학생 유입에 저해 요소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함. / (재무회계팀_최수호) 대학원생 인원 감소에 따라 수입도 감소하고 있어서 비용도 절감하는 상황. 그래서 교내 장학금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임. 대학원생 유입의 활성화 방안은 대학 전체적으로 고민 중이며, 수입 증대에 대한 노력을 할 예정. 인건비 부분은 조교 인원이 줄었음. / (류준형) 3년치의 비교 실적을 적어주시면 좋겠음. / (신성준) 경주는 조교 인건비가 줄어들었음. 서울은 왜 조교 인건비가 0인지 궁금함. / (김종윤) 직종 구분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임. 서울은 학과전담 행정직원을 두고 있음. / (김태호) 지방대학의 여건이 어려운 줄 알지만 일반 행정팀에서 일괄하여 맡기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. 팀이나 위원회를 결성하여 위기를 대응할 필요가 있음. / (장원희) 우리대학의 결산 규모를 학부 재학생 수로 나눈 후 주요 대학과 비교하여 재무건전성에 대한 고민 필요. /

(유정호)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평의원회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지 문의. / (최수호)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팀에서 1년 단위로 보고, 장기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(적립금)은 심의를 거칠 예정. / (류용현) 절차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등심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평의원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. / (장원희) 등심위가 내일이라서 전달 못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공유해주셔도 될 것 같음 / (기획처장_박찬규) 대학평의원회는 자문기구이며, 등심위는 심의기구라서 대학평의원회를 하고 등심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적절하다고 보임.

3. 의료원

(의료원 전략기획팀장_김형석) 코로나19에 따른 국고보조지원금 감소로 의료외수입이 감소됨. 병원이 커지게 되면 법인 수익이 많아져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음. 제2병원을 위해 수도권 물색 중이지만 대규모 투자금으로 인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. / (이주하) 장례식장 수익 사업에 대한 질의

간	김태호	신성준	최민성
서			
명			

■ 학칙 개정(안) 심의

(이주하) 이번 학칙에 대해서 어떤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쳤나 / (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_노지혜) 해당 학과에 협의는 모두 끝난 건임. / (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장_원충희) 학과명 변경 건도 학과에서 요청한 건이며 타 학과와 충돌이 발생한 부분은 없음. 그리고 이번에 신설하는 건은 순증 인원임. / (WISE캠퍼스 교육혁신처장_박종구)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게 입학정원 조정을 하는 것이 입안 배경.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4.30에 대교협에 제출 후 학생들에게 재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임. 학부를 이끌어 가는 교수님께서 직접 정조위에 참여하셔서 발전에 대해서도 발표함. 학과에서 자구적으로 입학정원 조정을 요청해 온 상황. 정책적인 판단에선 정부는 소규모 학과를 합하는 추세임. 학부 내 정원 조정도 학과에서 의견을 제출함. 학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부서에서 시행할 예정.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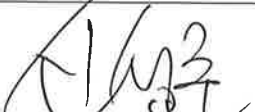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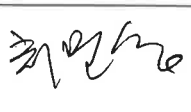
☞ 서울 및 WISE 캠퍼스 학칙 개정(안)에 대해서는 심의 완료 / *학칙 개정(안)은 홈페이지-대학평의회 탭에서 확인 가능

■ 기금 적립목적 변경(안) 자문

(대외협력실장_양성웅) 한국음악과 학과 발전 기금으로 기금 일부 금액 용도 변경 설명.

■ 기타 의견

(이주하) 서울 교수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대학발전 만족도 / 교육환경 만족도/ 연구환경 만족도 낮게 나옴. / (류용현) 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함. 건학위원회에서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지만, 대학원생들 수혜는 부족한 현실이라 확대 희망. / (박태선) 장학금 확대에 대한 의견 학교 측에 전달 요망 / (장원희) 108배 기부 릴레이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건학장학금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다. / (이주하) 108배랑 건학이념과 섞이는 것에 대해서 반발한 학생들도 있었음 / (최호진) 교수님 개별적으로 내신 기금은 꼭 동국건학장학금이 아니라 원하시는 용도로 쓰일 수 있게 설계되

간	김태호	신성준	최민성
서			
명			

어 있음. / (박태선) 장학금은 기부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함.

박태선	김태호	이준혁	장원희	이주하	류준형	신성준	김종윤	이용수	문재흠	유정호	류용현	최민성
												

간 서 명	김태호	신성준	최민성
	